

“승부는 안방에서”...TV토론 내일 개막



“논리 자신...우위 잡겠다” “골든크로스 이룰 기회” “대역 투입...완벽 준비” “토론의 진수 보여줄 것” “개혁경쟁 차별성 부각”

5·9 대선의 향배를 가를 대선후보 TV 토론회 시즌 개막을 앞두고 각 후보 캠프가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TV토론회는 13일 한국기자협회·SBS 초청 토론회를 시작으로 19일 KBS 토론회, 21일 JTBC 토론회, 23·28일과 다음달 2일 중앙선거위 토론회 등으로 이어진다.

양강을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TV토론을 독주(獨走)의 계기로 삼는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반면 범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진보 진영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전 포인트를 확보하기 위해 TV토론에 올인할 전망이다.

◇문재인, 5년 전 대선 토론 경험=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이미 5년 전 당시 박근혜-이정희 대선후보와 본선 TV토론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2012년 대선과 이번 대선후보 경선에서 TV토론을 준비하며 문 후보와 호흡을 맞춘 신경민 의원이 미디어본부장을 맡아서 토론 준비를 진두지휘한다.

일정	주관
13일	한국기자협회·SBS 토론회
19일	KBS 토론회
21일	JTBC 토론회
23일(정치분야)	중앙선거방송토론회
28일(경제분야)	"
5월 2일(사회분야)	"

문 후보 측은 새로 도입된 스탠딩 토론 형식이 특별히 불리할 게 없다는 태도다. 특히 문 후보가 변호사 출신으로 논리 전개나 내용 전달 면에서도 다른 후보에 비해 우위가 있다고 보고 토론에서 확실한 우세를 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TV 토론회서 골든크로스 노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민주당 문 후보와의 지지율 경쟁에서 TV 토론회가 ‘골든크로스’를 이룰 마지막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고삐를 바짝 죄었다. KBS·YTN 언론인 출신의 국민캠프 표철수 소통자문단장을 필두로 상황실, 정책실 인력을 보강해 토론회 준비를 꾸렸다.

캠프는 안 후보에게 스탠딩 토론이 유리한 방식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5년 전부터 청춘콘서트와 TV토론으로 단련돼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올해 초부터 재벌개혁, 일자리, 안보, 여성 등 각종 정책을 발표하며 콘텐트 면에서도 자신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실전 리허설로 토론 준비=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는 선대위 미디어본부 소속이자 TV 앵커 출신인 민경욱 의원이 중심이 돼 TV토론을 대비 중이다. 앞서 홍 후보가 참여한 TV토론 준비 회의 한 차례 가졌고, 전날에는 실무자들이 리포팅 한 차례 회의를 했다. 12일에는 다른 당 대선후보의 대역을 투입해 현안별 토론을 정리하는 실전 리허설도 가질 예정이다.

◇유승민, TV토론 최대 수혜자 평가=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는 TV토론을 통해 공약의 깊이와 내용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스탠딩 토론

자체가 바른정당의 경선 토론을 벤치마킹한 것인 만큼 경선과정에서 이미 스탠딩 토론을 경험한 데다 경선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쥔 유 후보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유 후보는 주요 공약 발표문은 물론, 간단한 논평이나 성명도 본인이 직접 작성할 정도로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토론기술과 정책 이해도에서 승부가 갈리는 TV토론에서 다른 후보를 압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상정 진보정책 차별성 부각=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TV토론 준비 데스크 포스(TF)를 총괄하는 박원석 공보단장 등을 중심으로 토론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 후보 측은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심 후보는 다른 야권 후보들과 ‘개혁 경쟁’ 측면에서 차별성을 부각하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개혁의 적임자로서 심 후보의 면모를 최대한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숙 여사 배식봉사 내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11일 오전 광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2차 선대위 강기정·김영록 합류

비서실 인선도 마무리

정책본부에는 김용의 민주연구원장이 공동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운영한 경선캠프 SNS 본부장은 1차 발표 때 선대위 SNS 부분부장을 맡기로 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공동 본부장으로 승격됐다. 후보 직속 조직인 특보단과 비서실 역시 인선은 완료됐다. 우선 조직특보단장에는 전해철 김영주 최고위원을, 직능특보단장에는 전현희 의원을 임명했다. 문 후보 원내 비서실장에는 호남 3선 의원인 이훈석 의원을 임명, 현역 의원들의 결속을 도모하고 비주류 의원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대로 직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부실장에는 문 후보의 최측근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안희정 충남지사의 최측근 윤원철 캠프 상황실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 장형철 캠프 기획실장을 공동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호남 출신의 송갑석 광주대학교 이사장을 추가로 공동부실장으로 임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

안철수 딸 재산 1억1200만원·자동차 1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안 후보의 딸 설희(28)씨의 재산이 예금 1억1200만원과 2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 한 대라고 밝혔다.

안 후보 측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7년 4월 기준으로 설희씨의 현재 재산이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약 1억1200만원”이라며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2013년식 시가 2만 달러 안팎의 자동차 1대가 있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

의 소득(원화기준 연 3000만~4000만원)의 일부를 저축한 것”이라며 “참고로 안 후보의 딸에 대한 학비지원은 대학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에 그쳤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그 어디에도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2014년부터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설희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으며 2014년 3월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설희씨의 재산은 9천300만 원이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에 손금주

국민의당 손금주 최고위원이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수석대변인으로 11일 선임됐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후임 수석대변인은 손 최고위원, 대변인은 김경록·김재두·김유정 3명이 각각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대변인에는 김근식 경남대 외교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판사 출신의 초선 의원인 손 최고위원은 20대 국회 개원 당시 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김경록 대변인은 안 후보 측, 김재두 대

변인은 천정배 전 공동대표 측, 김유정 대변인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측 인사로 각각 분류된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지역위원장을 맡은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전원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것으로 했다”며 “부대변인은 지역위원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상당수를 인선하겠다고 박지원 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